

배포 일시	2022. 12. 19.(월)		
담당 부서 <총괄>	철도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계흥 (044-201-4611)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최현우 (044-201-4612)
보도일시	2022년 12월 2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0.(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안전, 청년이 함께 했습니다

- 20일 철도안전 청년제보단 활동 종료식 -

<청년제보단 활동사례>

충무로역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 김○○씨는 역사 내 계단의 안전 손잡이 근처 장애물로 인해 승객이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다고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www.railsafety.or.kr)을 통해 신고했으며, 청년제보를 확인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즉시 시설을 개선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20일 철도 안전을 위한 제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철도안전 청년제보단(이하 청년제보단)” 활동 종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제보단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이하 자율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철도안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100명으로 구성되어 7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였다.
 - 자율보고제도는 일반 국민 누구나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즉각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 청년제보단은 활동기간 동안 총 438건의 위험요인을 신고했으며,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1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철도운영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하였다.

- 주요 개선과제로는 앞서 언급한 계단 안전손잡이 장애물 이설, 승강장 안전발판 개선, 선로변 펜스·승강장 천장 등 파손된 시설물 보수, 철도차량 내 누수 보수,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작업 규정 준수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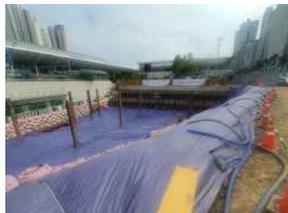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청년제보단 활동 종료식에서 5개월 동안 우수한 활동을 한 제보단원 10명을 선발하여 상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청년제보단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자율보고제도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6배 증가했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 면서,
 - “앞으로 일반 국민들께서도 철도 이용 중 느끼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면 신고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을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총괄>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영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계흥 (044-201-4611)
		담당자	사무관 최현우 (044-201-4612)
한국교통 안전공단	철도안전실 철도안전처	책임자	처 장 이헌수 (054-459-7321)
		담당자	선 임 신지훈 (054-459-7338)

참고

주요 조치사례

차량 통로 문손잡이 수리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소화기 가시성 확보 	광고분전반 이설 
승무사업소 출입 보안 강화 	옥수역 관로 점검보수 	비상조명등 보관함 개선 	광명역 우수 차단시설 설치 
신도림역 방수 조치 	1호선 전동차 실리콘 처리 	옥수역 선로출입문 쇠정 	인천호선 전동차 커버 조치 
주안역 헨스 보수보강 	병점역 안전표지 설치 	김제역 승강장 연단 보수 	화곡역 출구 물받이 철거 
구로역 시설물 보수 	신설동역 배수로카바 용접 	압구정역 고무발판 볼트커버 	서면역 기설시설 안전조치 